

<글말 교실 소감문>

국어국문학전공 공희수

-글쓰기에 자신 있던 우물 안 개구리

어릴 적부터 글을 좋아하던 나는 이번 없이 원하던 국어국문학과에 입학하고, 멋진 대학 생활을 할 수 있을 것만 같았으나 꽤 큰 좌절감을 여러 차례 경험한다. 신입생의 필수 교양 과목이었던 '글쓰기' 수업이 그 시작이었다. 레포트를 제출하는 것이 최종 과제였는데, 분명 논리적으로 짜임새 있게 잘 썼다고 생각한 글이 교수님의 혹평을 받고 퇴고의 과정을 일주일 내내 걸쳤지만, 결과는 B+였다. 이후 전공 수업에서 레포트를 기말 대체 과제로 제출하고 받았던 성적은 B0. 우물 안 개구리는 어릴 적부터 글을 잘 쓴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자란 탓인지, 어느샌가 성의 없이 써 내려간 말들을 보기 좋게 다듬고는, '이 정도면 충분해!'라며 만족해하던 나 자신에 대한 씩씩한 자기소개이다. 그렇게 1학년을 보내고 성찰보단 자괴감에 빠지며, 갈수록 논리적인 글을 쓰는 것을 어려워하게 되었다. 4학년이 된 현재까지, 부끄럽게도 레포트를 쓸 때 여전히 망설이게 된다. 그래서 졸업을 앞둔 마지막 1년은 대학이 나의 배움과 성장의 공간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을 만한 만족스러운 레포트를 써보고 싶었다. 요지를 알 수 없는 글이 아닌, 누가 봐도 '좋은 레포트'라고 느껴질 수 있을 만큼 말이다. 나는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교내 프로그램을 찾아보던 중 교양 대학의 글말 교실 프로그램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중 박수빈 교수님의 '대학레포트 잘 쓰는 법-과학적 글쓰기의 기초와 심화' 특강을 수강하며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었다.

강의의 서두에서 교수님께서 모든 제출용 글쓰기는 그 자체로 독자적인 글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다. 레포트를 쓸 때 항상 검색에 의존하고, 제출하는 것에만 의미를 둔 나에게 깨우침을 주는 문장이었다. 글쓰기의 과정은 튼튼한 집을 짓는 것과 유사하며 이를 위해선 '과학적 글쓰기'가 필요한데, 논리적 전개, 특정한 목적, 제대로 된 형식, 전문 자료 활용 그리고 독자적인 방법론이 과학적 글쓰기를 완성해 준다. 이 다섯 가지를 염두에 두어 글을 쓴다면, 나만의 독자적인 글이자, 좋은 레포트가 완성될 수 있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전에 많은 조사와 공부를 통해 글 안에서 대상과 목적이 분명하게 드러나야 하며, 전략적으로 글을 구성하여 개성과 독창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레포트의 기본적인 형식과 내용에 대해 배우고, 교수님께서 어떤 방식의 글이 효과적인지 예시를 통해 설명해주시기에 이해가 쉬웠다. 그동안의 레포트를 과제 제출을 위해, 결론적으로는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 쓰는 일회성 글이라고 치부했다면, 이 강의를 수강하고는 처음부터 끝까지 나의 설계하에 튼튼하게 지을 수 있는 멋진 레포트를 써보고 싶다는 자신감과 열의로 가득 차게 되었다.

글말특강뿐만 아니라 일대일 코칭을 통해 교수님들께 직접적인 조언을 들을 수 있으며, 글

쓰기, 말하기, 외국어, 자기소개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은 선택이 가능하다. 글말 교실에 관심을 가지고 소감문을 보는 학생이 있다면 꼭 수강해 볼 것을 추천하고 싶다. 이러한 유익한 프로그램이 많은 재학생들이 모르고 있다는 점이 아쉽게 느껴진다. 나 또한 해당 특강을 꽤 긴 경로를 거쳐 찾은 기억이 있다. 따라서 ON국민의 push 알림으로 9회차에 걸쳐 진행되는 글말특강의 각 세부 강좌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한다면 학생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더 많은 관심을 모을 수 있을 것 같다. 도움이 필요하지만 교내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해 잘 모르는 학생들에게 적재적소의 교실을 마련해줄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교양대학의 글말교실은 배움을 위해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과 나아가 사회에 나가기 전 도약을 하는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길잡이가 되어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내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성장할 수 있었던 것처럼, 앞으로도 다양한 영역의 강좌들이 개설되어 재학생들이 교양을 쌓을 기회가 제공되기를 소망하며, 학생들을 위해 참여해주시는 교수님들과 운영진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다.